

다산 정약용 하피첩 '208년만에 귀향'

강진군 다산기념관,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맞아 특별전시회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목민서 집중전시 이해도 향상



하피첩(국립민속박물관), 1810년. 정약용(1762~1836)이 두 아들에게 전하는 당부를 적은 서첩이다. 부인 홍씨가 강진 유배지로 부쳐온 빛 바랜 흔래복인 붉은치마(紅裮)를 재활용했다. 2004년 경기 수원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의 수레에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유물감정 프로그램에 의뢰,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군 다산기념관은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9월16일까지 다산의 '하피첩'을 포함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진군은 이번 전시회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온 지 10년 되던 해인 1810년 다산초당 동암에서 부인이 보내 온 치맛자리를 잘라 두 자식들에게 전해준 하피첩이 208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하피첩은 다산의 애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이다. 다산 초당에서 직접 치마를 잘라 글을 적는 다산의 모습을 상상하다보면 하피첩에 적힌 말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이 통쾌하게 일어난다.

감동적인 아트 영상도 볼거린다.

다산기념관은 이번 전시영상을 기획하면서 다산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냈다.

국내 최고의 샌드아트 작가와 함께 다산의 시 '해절양'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파격적인 연출과 최초 공개하는 '목민서'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서지류 전시는 텍스트 의존도가 높아 관람객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시선을 압도하는 파격적인 연출을 시도했다.

기획전시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다양한 컬러감을 살렸고 서화류 1대 1 실측을 통해 생동감을 넣었다.

목민심서 제작의 기반이 됐던 다양한 목민서를 집중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특별전은 강진군이 군민들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다산의 애뜻한 부정과 함께 다산의 흔적을 실물로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TF팀 구성 무더위쉼터 정비·안부살피기 등 추진

곡성군은 연일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달부터 '2018년 곡성군 폭염대비 TF팀'을 구성해 무더위쉼터 정비, 폭염취약계층 안부살피기,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폭염대응요령 마을방송 및 읍·면 담당자 예찰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폭염특보 발생시 위험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갈증을 느끼기 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모자와 헝겊한 옷을 착용하여 신체 온도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폭염 시 읍·면 및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불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곡성군은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행동요령 지속홍보 및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 살수와 관내 317개 무더위쉼터 운영상태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및 가까운 무더위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대나무축제, 소비효과 커...평소 2배 이상

축제 기간 소비효과 103%·외지인 매출 93%



2년 연속 문화관광 분야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담양대나무축제의 지역 소비효과가 평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빅데이터 전문기관(빅데이터)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담양대나무축제의 지역 소비효과는 103%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빅데이터는 지난해 문화관광 축제가 열린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기간 1일 평균 KB 국민카드 결제액을 전년도 1일 평균 카드결제액과 비교해 그 증가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분석, 축제 소비효과를 산출했다.

담양은 분석대상 축제 44개 중에서 소비효과가 두 번째로 높았

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외지인의 카드결제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나무축제는 98%로, 외지인 유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기간에 카드 결제 이용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57%로 남성(43%)보다 많았다.

축제기간 동안 지역 내 카드지출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도소매 소비 29%, 숙박 및 음식비 58%, 오락 및 기타 소비 14% 등으로 숙박과 음식비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밖에도 대나무축제 기간 지역 내 1인당 평균 카드 결제액은 4만 4000원 수준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카드결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며 "숙박과 음식비에 편중된 소비를 분산시키기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담양군, 임신·출산

육아정책 더욱 강화

담양군이 영유아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제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를 위한 탄산에방크림과 유축기대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탄산에방크림 지원은 매 임신 시 1회,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탄산에방크림·유축기

영유아 영양제 3개월분 지급

임신부에 지급된다. 유축기 지원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대여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유축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만1~5세 관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에게 비터민 3개월분이 지급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을 개발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공동체를 갖춘 '행복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오는 28~29일

가야금 산조의 분향인 영암에서 신진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가야금 국악대전이 열린다. 영암군은 제7회 영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 가야금병창, 관악, 현악 4개 분야에서 일반부, 학생부(가야금 및 가야금병창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뉨)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부 종합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일반부 대상에는 전남도지사상, 학생부 대상(고등부,

중등부)은 전남도교육감이 수여되는 등 50명에게 시상이 수여된다.

본 경연에 앞서 27일 오후 5시부터는 개회식과 함께 가야금산조 기념관 개관주년을 축하하는 인간문화재 양승희와 제자들, 영암 어린이 가야금연주단이 함께하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국악대전은 가야금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고 있다"면서 "경연대회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